

암초의 해양생물

구시로만은 깊은 해저협곡에 의해 두 가지의 크게 다른 환경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다른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쪽 부분에는 완만한 모래밭 해안선이 펼쳐져 있는 반면, 동쪽 부분에는 가파른 암벽이 해안을 따라 네무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동쪽에 생물이 풍부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위는 다시마류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갑각류, 조개류, 작은 어류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난류와 한류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 해역에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을 운반해옵니다. 이런 조건들이 정어리 등의 회유어를 끌어들여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

물고기 중에는 줄노래미(학명: *Hexagrammos lagocephalus*)와 애조귀노래미(학명: *Hexagrammos stelleri*)처럼 몸 색깔을 바꿔 바위에 몸을 숨기는 능력을 발달시킨 물고기도 있습니다. 또한, 살걱정어(학명: *Myoxocephalus polyacanthocephalus*)나 동갈횃대(학명: *Hemilepidotus gilberti*) 등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시가 달린 몸과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도 있습니다.